

스럼다

장난

어려운 형식으로 기자들을 만난 자
에 말했다. "김대중 전 민주당 대표
정계를 떠나신 분이요, 그렇기 때
들이 다시 있을 리 만무하고 있어
다 본다. 상대방인 민주당에도 추호
를 한 일이 없었고 앞으로 있을

영삼 후보와 민자당이 김대중 후보
'용공음'에 한 적이 없다는 김종필씨
의 말이 들어도 웃을 거짓말이다.
뒤져보면 증거가 쏠 수도 없이
다. 민자당은 김대중 후보를 '용공분
로 몰려고 '인공기'를 그린 홍보물
을 만들었다가 여론의 호된 비판을

취임할 대통령 당선자에게 사과
태도를 누그러뜨려 김종필 대표가
국 양보한 것은 '대화와 협상'의 정
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
다. 김 대표의 부도덕하고 불성실
말장난 때문에 민주당은 극한적인
하였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러
의원들도 철수시키고, 국회에도 불
다.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식은 김
한 연동 때문에 유일야당의 축하
는 절절발이 잔치가 되고 말았다.
으로 여당과 야당이 합리적인 정
정정당당한 수권경쟁을 벌이기를
그렇게 하려면 여당은 기왕에 저
를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
대통령은 취임 초기의 위신에 집착
문제를 깨끗이 마무리하기 바란다.

'대헌' 정국

유리하게 이끌려는 정치세력에
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이 바로 권력분점과 권력관계의
세계의 정립과 직결된 새 헌법안과
정시킬 국민투표 문제를 중심으로
그 때문이다. 경제·정치개혁으로
될 위험에 빠진 보수세력들이 급
에 저항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최고회의의 등 의회의 다수파로 결
이 생활고에 지칠 대로 지친 국
이용해 새 헌법안에 규정된 권력
에 유리하게 만들려는 것도 그들
시키려는 안간힘이라 하겠다. 현재
중심으로 한 개혁세력은 옛 소련
원 헌법헌법이 최고회의를 러시아
구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바로잡
심을 정부로 옮기려고 시도하고
다. 옛 소련 체제에서 선출·구성된
최고회의는 의회 쪽에 중심이

문민시대 변화의지 천명

김 대통령 취임사 분석

25일 발표된 김영삼 제14대 대
통령의 취임사는 우리 사회가 전
체적으로 한국병을 앓고 있다고
진단하고 신한국 건설을 위해 국
민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땀
것을 호소하고 있다.

국정지표를 '신한국 창조'로 제
시한 뒤 어떻게 여기에 이를 것인
가 하는 방법론과 전략에서 어느
정도 예상했던 내용으로 돼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론과 전략의
제한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취임사
는 남북 정상회담을 향한 진지한
의지, 그리고 청와대와 정부가 앞
장서는 '변화와 개혁'에의 의지로
돋보인다. 새 대통령은 역대 대
통령과 달리 취임연설을 하는 동안
주먹을 불끈 쥔 채 치켜올리는가
하면 곳곳에서 격양된 목소리로
강조하는 등 나름대로 상당한 결
의를 나타내기도 했다.

'우리 다 함께 신한국으로'라는
제목으로 된 새 대통령의 취임사
는 우선 현재를 '문민 민주주의의
시대'로 규정하고 있다. "30년의

세월을 기다려 세운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로 현 정권을 정의해
김영삼 정권이 이제까지의 군사정
권과 단절하고 그대신 4·19혁명
이후의 2공화국을 계승한 것으로
정의한다. 새 대통령은 이와 함께

통일문제 전향적 자세 돋보여 한국병 치유 피상적 접근 그쳐

새 정부가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의 불타는 열망과 거룩한 희생으
로 이루어졌다"고 밝히 그동안 계
속돼온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
에서 성립된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취임사에 따르면 신한국은 △좁
다 자유롭고 성숙한 민주사회 △
정의사회 △더불어 풍요롭게 사는
공동체 △민족이 하나되어 평화
게 사는 통일조국 △인류의 진보

에 기여하는 나라 △누구나 신바
람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로 정의
된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사회는 지
금 한국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진
단된다. "위기는 외부의 도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
에 번지고 있는 정신적 패배주의"
때문이라는 것이다. 구조주의 접

사는 이제까지 김영삼 대통령이
밝혀온 몇가지 대증요법적 처방을
추가시켜 제시하고 있다.

그 하나는 바로 위로부터의 솔
선수법이다. 먼저 부정부패척결을
위한 '위로부터의 개혁'이 약속되
고 있다. 또한 정부가 먼저 허리
띠를 졸라매겠다는 약속도 나온다.
나이가 청와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하고, 국가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발나뭇을 가리지 않고
일하는 '일터'로 탈바꿈하겠다는
결의도 표출돼 있다.

김영삼식 현상주의도 강조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미 대통령
당선자 자격으로 중소기업체를 2
차례 방문한 바 있는 그는 이번
취임사에서 다시 "국민이 일하
는 현장, 기쁨과 고통이 있는 현
장에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

고 있다.
정치 역사 "민의 행복을 강조
하는 생활"이 이야기 한다고
역설한다.
이런 대증요법적 처방이 바로
"변화와 개혁을 통한 삶이 있는
안정"이라고 김 대통령은 규정짓
는다.

이번 취임사에서 가장 전향적인
분야는 남북문제, 통일문제라고
할 수 있다.

김 대통령은 "어느 동맹국도 민
족보다 더 나을 수는 없으며, 어
떤 이념이나 사상도 민족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전제 아래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참으로 민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정한 화해와 통일을 원한다면
언제 어디서라도 만날 수 있다"면
서 남북 정상회담을 공식 제의하
고 나섰다. 그런 과정을 거쳐 "조
국은 이번 세기 안에 통일될 것"
이라고 묵시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특히 김 대통령은 젊은이들이
세계와 미래에의 전망 아래 "방관
에서 참여로" "비난에서 참조의
길로" 나갈 것을 촉구해 눈길을
끈다.

이 모든 방법론과 전략은 다시
'고통분담론'의 호소로 돌아온다.
인내와 시간과 눈물과 땀이 강조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김영삼 정권은 나
대로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와 의
지를 보여주면서도 진단과 처방에
서 구조적 시각과 전략을 결여하
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씻어주
지 못하고 있다. 오귀환 기자



새출발을 위하여 김영삼 대통령이 25일 저녁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경축연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축하를 들고 있다.

'취임 주가' 폭락

860선 붕괴 울들어 가창량이 떨어져

일본 정신대 강제연행 인정방침

교도통신 보도 피해자 청취조사·지원금등 고려

【도쿄=연합】일본 정부는 25일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한
것을 계기로 양국간의 최대 현안
인 중군위안부 문제를 조기 타결
을 위해 한국측이 강력히 요구하
고 있는 '강제연행 사실'을 인정하
다는 정치적 판단을 굳혔다고 <교
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또 지금까지 공문
서에 한정했던 실태조사 방법을
바꿔 중군위안부 피해자들로부터
청취조사를 벌이는 것도 검토하고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 '보상에 대신하는 모종의 조치'
를 포함시켜 포괄적인 최종 타결
을 꾀할 방침이라고 이 통신은 전
했다. 일본 정부는 보상에 대신하

지원을 전달하는 방법 등을 고
려하고 있다.

핵사찰 호응등 중지촉구

백남준위원장 회견

남북고위급회담의 백남준 정치
분과위 북측위원장은 25일 한국
의 93 팀스파르티즌훈련 재개와 대
북특별핵사찰 호응에 대해 "북한
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을 무효
화시키려는 고의적 책동"이라고
비난하면서 이의 중지를 촉구했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백남준 위
원은 이날 평양인민문화공전에서
진행된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
공동위 북측위원장들의 공동기자

국단적인 긴장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인사 ● 통일원 △
남북회담사무국 회담
협력관 조건식

● 교육부 △정보기계공고 교
장 유지탁 △서울문수고 △김성태
△봉은국고 △장길호 △한경이
중 △명도걸 △노봉중 △김갑수
△국립교육평가원 평가연구실장
임갑삼 △서울시교육청 김성기 김
교도 △중앙교육연수원 교수실 최
낙준 △교육협력과 하효명 △정신
교육장학관실 김관삼 △한국체육
대 노상석 △교원복지과 한진우
△학사지도담당관실 오명식 △자